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
		배포일시	2021. 10. 29.(금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	교통정책 총괄과	담당자	• 과장 김정희, 서기관 조숙현, 주무관 운영대 • ☎ (044) 201-3761, 3794	
보도일시		즉시 배포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제교통포럼(ITF) 김영태 사무총장 연임 사실상 확정

- 63개 회원국 관리이사회 투표(10.28) 결과 40개 참가국 만장일치 찬성
- 내년 5월 장관회의에서 최종결정 시, ITF 사무총장직 연임 최초 사례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10월 28일 모로코 라밧에서 개최된 국제교통포럼(International Transport Forum) 제34차 관리이사회(실무위원회)에서 현 김영태 사무총장의 연임에 대해 63개 회원국 중 투표에 참여한 40개국의 만장일치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.
- 모든 교통분야의 글로벌 담론을 주도하는 국제교통포럼은 1953년 출범한 유럽교통장관회의가 2006년 확대 개편된 범정부기구로, 우리나라는 2007년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, 2017년부터 김영태 사무총장(장관급)이 사무국을 이끌고 있다.
 - 국제교통포럼의 최초 비유럽권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김 총장은 2006년 확대 개편 이후 최초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, 김 총장의 1차 임기는 내년 8월 종료 예정이나, 이번 투표 결과로 연임이 확실시 된다.
 - 김 총장은 1차 임기 동안 과거 유럽국가 중심이던 국제교통포럼에 우즈벡, 몽골, 콜롬비아 등 비유럽 국가를 회원국으로 유치하는

등 그 저변을 확대하면서 국제교통포럼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교통기구로 자리잡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○ 한편, 그는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정책, 자율주행자동차 정책, 알뜰교통카드를 포함한 대중교통 정책 등 다양한 국내 교통정책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 교통분야 의제 형성에 있어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해왔다.

○ 지난 8월에는 노형욱 장관과 한국의 교통분야 국제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“국토교통부는 이번 김영태 사무총장 연임을 위해 외교부(장관 정의용), 주 OECD대표부(대사 고희권)와 긴밀히 공조하여 사무총장 활동에 대한 지원과 회원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해왔다”고 하면서,

○ “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의 연임은 국제교통포럼 구성 이래 최초의 사례”라고 강조하며, “앞으로 교통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김영태 사무총장의 연임 여부는 내년 5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 예정인 교통장관회의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 총괄과 조숙현 서기관(☎ 044- 201-37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